

## “새미래”에 거는 미래의 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너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거는 기대와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고, 우리의 일과 책임 또한 이에 비례하여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문명사적 전환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인 것입니다. 변화를 입지 못하고 변화의 수용이 늦어져 지난 한세기 동안 가난의 역사를 지냈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왕 변화해야 한다면 수동적·사후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선도함으로써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로써 모든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방식은 과거와 같이 일방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개개인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쌍방향적이고 지속적인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의 위상변화에 따라 수많은 정책현안과 사회갈등을 풀어야만 하는 국정기획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와 같이 권위주의적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가지고는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기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변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변화 이후 달라지는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은 달리는 두발 자전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만 앞으로 전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페달 밟기를 멈춰버린다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다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힘차게 페달 밟기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희망을 주니어보드 새미래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혁신을 토론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국무조정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내일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니어보드 화이팅! 국무조정실 혁신 파이팅!



##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이 시사하는 점

2005년 5월 24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혁신포럼의 결과는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환영사, 국무총리의 폐회사,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의 연설문,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의 연설문, 서울 선언문 및 김호영 포럼 기획단장의 브리핑내용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요체가 담겨져 있어 국무조정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가감없이 그대로 새미래에 실으니 꼭 일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새미래



## 노 대통령,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개회식 참석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우리의 정부혁신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혁신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혁신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 달에 'OECD 정부혁신아시아센터'를 개설하고, 각국의 거버넌스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설립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 〈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개회식 노무현 대통령 환영사 〉



존경하는 「물라」 브라질 대통령,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탁신」 태국 총리, 「오캄포」 유엔 사무차장,  
그리고 각국 대표와 내외 귀빈 여러분,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세계 140개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국 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지구촌 혁신대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포럼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포럼을 공동 주관한 유엔 관계자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인적·물적 자원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7년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주도형 발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혁신을 통해서 국가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생각 아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목표는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리고 분권과 자율이 보장된 정부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혁신관리체제를 구축하고, 100대 혁신과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구현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관리·위기관리 시스템 등이 한층 강화되었고, 정책품질관리·성과관리·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관리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탑다운(top down)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자율권도 크게 확대되어갑니다. 공직의 개방과 교류도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자정부의 구축도 현재 세계 5위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방분권도 구호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656개의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러한 정부혁신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혁신노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시장개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패없는 투명사회 건설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 더 정경유착은 없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시민사회와 경제계, 정치권, 정부가 함께 손잡고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사회적 약속으로 발전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노사관계 등 사회 각 분야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우리의 정부혁신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학습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혁신의 성공사례들이 빠르게 확산되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국무위원을 비롯한 리더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믿음의 근거는 역시 우리 국민입니다. ‘한번 해보자 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높은 성취동기, 그리고 늘 그것을,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의 창조적 역량이 반드시 혁신을 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지구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경쟁할 일도 많이 있지만, 함께하는 이웃으로서 힘을 모으고 협력해야 될 일은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혁신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OECD 정부혁신 아시아 센터’(OECD Asian Center for Public Governance)를 다음 달에 개설할 예정이고, 각국의 거버넌스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더 좋은 정부,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 머무시는 동안에 즐겁고 그리고 보람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6회 정부혁신세계포럼 폐회사

국무총리 이 해 찬



존경하는 140여 개국의 정부대표,  
국제기구대표, 경제계대표,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준비위원장 및 주최국 총리로서 이번 포럼이 서울선언문 채택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포럼 기간 내내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UN과 한국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포럼에서 우리는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에 대해 생산적인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점은 21세기가 더 이상 공공문제를 정부 혼자서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 속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형태와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고민해야하는 공동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정부인사, 국제기구 대표, 학자,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열띤 토론의 시간을 보낸 이유도 바로 21세기형 거버넌스를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정부 혁신 세계포럼에서는 5개의 세션과 워크숍을 통해 각국의 경험과 혁신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관계장관 회의, 세계지방자치단체장회의, 120여개 기관이 참석한 국제혁신박람회 등 각종 부대행사를 통해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공공의 혁신사례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부 혁신 세계포럼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이와 같이 혁신 경험의 공유를 통해 각국의 정부혁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전 세계적인 혁신 네트워크를 보다 공고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21세기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인 “참여와 투명성”에 대해서 토론함으로써 모범적인 거버넌스의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선언문에 반영된 이번 혁신 포럼의 주요 성과는 향후 세계 각국이 좋은 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아주 훌륭한 밑거름이자 지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혁신은 모방으로 시작해서 학습을 거쳐 창조적 활동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의 변화 동향을 이해하고 각국이 당면한 혁신 문제를 서로 도와가면서 해결한다면 보다 더 좋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정부 혁신 세계 포럼을 통해 얻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와 투명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부혁신 만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믿음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 혁신에 많은 열정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혁신 세계포럼 개최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전 세계 혁신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향후 지속될 정부혁신 세계포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를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각국의 정부혁신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며, 누구보다도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참석범위가 전 거버넌스 영역으로 확대되어 정부 인사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기업인, 학자, 시민단체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속담에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의 의미를 중시하는 말입니다.

함께한 4일간의 정부혁신포럼 서로에게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했던 이번 만남이 내년 7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차 정부 혁신 세계포럼으로 계속 이어져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관심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혁신 세계포럼과 여러분의 부궁한 발전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정부의 혁신비전과 전략 – 정부의 IQ와 EQ를 높이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윤 성 식



존경하는 Terry. Texas대 부총장, Hawke 오스트레일리아 전총리, Johnston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의 한국세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서,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더욱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각국의 혁신사례를 통해 혁신방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40년 동안 정부주도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정치의 민주화도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자발적 혁신 참여가 미흡하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지는 못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부, 고품질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국민에게 봉사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비전은 “21세기 혁신국가의 건설”입니다. 21세기 혁신국가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가 혁신하는 국가,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하여 시정해 나가는 혁신자동장치가 구축된 국가, 모든 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국가, 이 3가지를 뜻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부의 IQ와 EQ를 높이기 위해서 혁신자동장치를 구축하고 모두가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의 내용과 방향을 크게 7가지 콘텐츠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과 분권입니다. 21세기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자율과 분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율과 분권은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 주며,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시스템을 만들어 줍니다. 총액인건비 제도,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등을 통하여 인사와 예산, 조직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의 확충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가와 감사입니다. 평가와 감사는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혁신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평가와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문제파악 기능과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혁신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인프라 및 부처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지

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명성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면 문제점이 낱알이 드러나고 혁신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업무의 철저한 기록과 관리,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보장, 공직윤리의 강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이 투명성을 높여주는 방안입니다. 넷째, 개방성과 참여입니다. 외부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문제로 인식되며 혁신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인재에게 공직을 개방하고, 공무원 충원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고와 문화를 바꾸는 혁신문화의 구축입니다. 혁신문화는 끊임없이 변화를 지향하는 문화이며,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혁신을 불리일으키게 됩니다. 다양한 조직변화 프로그램, 정부혁신관리 매뉴얼 발간, 각종 혁신토론 및 학습활동이 바로 그러한 혁신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여섯째, 전문성과 효율성입니다. 알지 못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없듯이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혁신역량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효율적 업무처리를 통해 혁신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과 학습조직의 구축입니다. 21세기 혁신국가는 인재중심의 국가이며, 인재에 대한 투자와 문제를 끊임없이 시정하는 학습조직은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지식경영 및 학습조직 구축을 통해 끊임없이 교육하고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정부에서는 비전과 콘텐츠가 있는 정부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혁신의 비전과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정부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혁신과제의 발굴과 실행을 위하여 2003년 4월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자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는 수많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부혁신의 비전과 혁신방향을 구체화한 “정부혁신자방분권 로드맵”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계, 전자정부, 기록물관리개선 등 분야별 주요 혁신과제들을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화된 혁신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정부혁신본부를,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혁신기획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각 추진주체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도 소속기관, 산하기관, 민간전문가 등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문화의 조성을 위해 공무원과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및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대화, 대통령 편지 등을 통하여 혁신메시지를 전달하여 왔고, 장관관,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주니어보드, 지식동아리, 스터디포럼 등 비공식 조직을 통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토요일은 학습의 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부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은 우리정부의 자랑입니다. 지난 해 UN이 실시한 전자정부 수준진단에서 대한민국이 5위를 차지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보화에 기반한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전자적 업무처리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볼 때 참여정부 혁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확고한 혁신의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혁신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판단아래 정부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삼는 자율개혁도 참여정부 혁신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즉 현업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므로, 여건만 조성된다면 혁신에 나설 수 있다는 믿음과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혁신은 일회성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 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혁신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혁신지향적인 관행과 문화의 구축에 역점을 두는 것도 이전 정부와는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혁신에 대한 감정, 정서, 태도, 시각이 긍정적이어야 혁신자동장치가 작동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사고와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혁신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그 동안의 지속적 혁신노력으로 정부기능 재조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국가 R&D 혁신, 전자정부 관련법령 일괄정비, 국가평가체계 정비, 교육훈련 혁신 등 많은 제도개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의 감축, 정보화에 기반한 전자적 업무처리 등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특히 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21세기에는 상시혁신을 위한 혁신자동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자발적인 혁신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부혁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IQ와 EQ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수출가능한 정부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외국의 혁신사례를 수입하던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혁신사례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혁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세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에 머무시는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 5.25





## 많은 평가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성과중심의 행정 구현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단장 : 국무조정실장, 부단장 : 심사평가조정관)이면 일단 명칭이 길어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고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게다가 '국가'라는 거창한 이름이 들어가서 더더욱이 추진단의 임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현재 이마빌딩 606호에 소재해 있으며, 공무원 14명, 출연(연) 전문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부터 지속적인 평가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

동해 오신 평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이윤식 숭실대 교수)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기존의 각종 정부내의 평가제도를 통합 실시하고, 평가방식을 자체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 '국정평가기본법(안)' 제정, 새로운 평가제도의 시범실시, 평가지표의 개발,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진단은 예산처, 인사위, 행자부, 정통부, 국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서 우수 인력들로 운영되어 타 임시조직에 비해서 상당히 다채로운 조직색깔을 가집니다. 또한, 평가지표 개발 등 업무 자체가 여러 구성원의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많아서 브레인스토밍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추진단은 기관평가, 재정사업평가, 기관인사운영실태평가, 정보화평가, 전자정부평가 등..... 많은 평가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공무원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추진단의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새미래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샬롬!

여러분들과 “새미래”를 통해 소중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저희 국무총리실 선교회는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직원 중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몇몇이 모이다가 98년 10월부터 목사를 모시고 매주 정기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성경공부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2.2) 드디어 직장 선교회로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회원은 대략 20명이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맡은 업무를 주께 하듯 하며, 직장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직장가운데서도 교회처럼 지어진 건물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짐을 져주는 기도와 교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성경공부를 목사님을 모셔서 진행하고 있으며, 매달 마지막 주에는 월례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가까운 종교교회에서 주위의 타 직장인들과 함께 목요직장인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장선교회라는 이름처럼 저희 모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가족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전해드리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직장동료들이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영적·정신적 안식을 얻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누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미래

※ 인원현황 - 회장 : 최경하(복권위 복권총괄과)

- 총무 : 정은주(심사평가2심의관실)

※샬롬은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를 뜻하는 인사말입니다.

## 봉급날에 만나는 사람! 이무윤 실무관을 칭찬합니다.



〈총무팀 실무관 이무윤〉

우리는 언젠가부터 봉급날을 실감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봉급이 내것이라기 보다는 언제나 그녀(마누라)의 것이었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봉급날을 기다려지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것은 봉급날에 보내오는 사랑이 담긴 글 때문이죠

봉급이 적은 달에는 마치 자기가 많이 주지 못해 안쓰러워하는 인정어린 말 한마디, 봉급이 많은 달에는 기분이 좋아서 마음을 들뜨게 하는 풋풋한 가족이야기, 사랑이야기, 계절이야기 등 봉급과 함께 보내오는 이메일에 담긴 글은 사랑의 보너스입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은 이무윤 실무관으로 인해 다른 어느 부처 공무원 보다 봉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국정에 더욱 매진하게 해주는 이무윤 실무관을 작은 거인이라 칭찬하고 싶습니다. 새미래

〈심사평가제도심의관실 심의관 남세현〉



## 관심과 애정



〈규제개혁심의관실 김희산〉

여러분, 혹시 ‘내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양자 중 어느 하나’라는 뜻도 있고, ‘부터~까지’라는 뜻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도통 헷갈리네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각종 법조문을 보노라면 이렇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문장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법과 친숙한 공무원들이 이렇진대 하물며 법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일반 국민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저희 규제개혁조정관실에 대한 부처의 평가를 보면 업무의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고민하던 차에 생각해낸 것이 규제심사를 할 때 국어전문가를 활용하여 규제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작성토록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반국민들 입장에선 관련법령이 이해하기 쉬워서 좋고, 부처에서는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좀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당연히 규제개혁조정관실의 업무품질도 높아지고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죠.

국어전문가를 통해 주로 검토한 것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며, 번거로운 표현을 간결히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업무 처리절차는 부처의 규제심사 의뢰건에 대해 안전담당자가 문제의 중요성 유무를 가려 국어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국어전문가는 좋은 법령문장의 요건 등을 검토하여 회신하고, 안전담당자는 이를 해당 부처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검토한 우수 안전을 중심으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였습니다.

관심은 변화를 낳고 변화는 발전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평소 내 업무나 조직 혹은 주변에 대해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요.

자! 이제 관심어린 시선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많은 변화의 손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미래

## 혁신 최우수 사례

### 규제안건심사시 국어전문가 활용(규제조정관실)

#### □ 추진배경

- ▶ 각종 규제관련 법조문이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되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어문법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법령 제·개정 부처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
- ※ 05. 1 ~ 3월 현재 제정안 8건, 개정안 10건 등 법령안 검토 및 규제조정관실 심사담당자에게 수시 자문 실시

#### □ 절차

- ▶ 각 부처에서 심사담당자에게 법령안 신설·강화 규제심사 의뢰 → 심사담당자가 국어적 표현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제정안인 경우 국어전문가에게 법안을 e-mail로 송부 → 국어전문가의 법안검토 및 회신 → 각부처에 국어전문가의 검토의견사항 제공(수용여부는 부처의 자율)

#### □ 활용의 효과

- ▶ 고객인 각부처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
- ▶ 법령 제·개정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오해하지 않는 법령 제개정이 이루어져 규제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 불필요한 마찰이나 불신 해소 기여

#### □ 향후추진계획

- ▶ 매뉴얼로 제작하여 전부처에 배포·확산





## 혁신 우수 사례

### 감사서신 발송을 통한 건전비판 수용(정책상황실)

#### □ 개요

- ▶ 03. 12월부터 각 부처별로 언론건전비판을 발굴·등록하고 정책상황실에서 수용유형 분류 후 추진상황관리
  - － 건전비판보도별로 계획수립·즉각조치·정책참고보도 등으로 분류하여 소관부처에서 정책에 수용
  - － 04년 대통령지시사항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05년부터 오보대응 관리와 통합하여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media.allim.go.kr)에서 관리
- ▶ 05.4.28 현재 39개 부·처·청에서 월평균 55건, 총 218건 수용 - 월평균 53건(1월)→ 35건(2월)→ 77건(3월)→ 53건(4월)

#### □ 감사편지 발송

- ▶ 정책상황실에서는 05. 3월부터 건전비판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서 감사편지 발송토록 독려
  - － 05. 4. 28 현재 건전비판 기사·칼럼진에 대해 20개 부처에서 총 81건의 감사서신 발송
    - ① 환경부·건교부 14건 ③ 해수부 9건 ④ 관세청 6건 順
  - ⇒ 정부가 언론건전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홍보
  - ⇒ 서신을 받은 건전비판 필진이 부처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정부의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
- ※ 건전비판발송관련 언론 보도사례 2건(한국일보, 세계일보)

### 1과 1구청 정책결연 사업 추진(복지심의관실)


#### □ 추진 목적

- ▶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결연을 맺음으로써 현장중심의 의제 발굴 및 대안제시
- ▶ 현장 방문 학습을 통한 복지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심의관실 자체 혁신과제로 추진

#### □ 추진 방법 및 경과

-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월 1회 방문간담회 및 주계토론 실시
- ▶ 사회복지시설 현장 방문 및 사회복지사 1일 체험 실시
- ▶ 3.23 현재 복지심의관실 사회총괄과 - 노원구청 간 정책결연

#### □ 제 1차 방문 간담회 결과(3.23)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복지부·노동부·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종 지침이 산발적으로 시달되어 업무가 중첩되거나 업무 과중 초래
  -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부족(1인당 200가구 담당)과 일반 행정업무와의 병행으로 위기가정 조기 발굴 어려움
  - ※ 공익근무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문성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 제시
  - － 중앙부처에서 시달하는 조사업무가 비현실적인 것이 많고 지침 시달이 늦어 민원 수요에 조기 대응하지 못함
-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 ※ 근로소득을 채무변제에 사용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례 있음
- ▶ 저소득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안정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 조정관실 1/4분기 혁신 활동

### 기획관리조정관실

#### □ 『특별정책과제』 발굴 계획 수립 및 추진

- ▶ 특별 외국인체류(이민) 및 귀화요건 개선(정책상황실 2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상황실 총괄팀)을 특별과제로 선정 추진  
⇒ 정부 혁신활동에 부응하여 정책발굴을 활성화하고, 발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무총리실이 정부혁신 주도

#### □ 2005년도 회의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 ▶ 회의 유형별로 나누어 만족도 설문지를 다양화하고, e-mail방식에서 회의후 즉석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004년도 조사방식 한계 극복 ⇒ 회의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회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도모

#### □ 혁신 워크숍 개최(4.16~17)

- ▶ 정보의제관리 효율화 방안, 정책현안점검회의 개선방안, 부처 확산계획 등 토론

#### □ 건전비판 필진에 대한 감사서신 발송

- ⇒ 감사서신 발송을 통해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 구축

### 경제조정관실

#### □ 호프미팅

- ⇒ 정기적 호프미팅 개최를 통한 직원 상호간 유연성 제고 및 의사소통 촉진

#### □ Action Learning 실시

- ▶ 『영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대책』을 주제로 심의관실별 1개팀씩 구성, Action Learning 실시

#### □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리·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

- ▶ 연구회 통합, 이사장 비상임화, 사무국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원장선임제도 개선, 혁신수준 진단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과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

### 사회문화조정관실

#### □ 직원전문성향상 특별교육

- ▶ 복지확충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대학경쟁력 제고방안, 고령화사회대비 국가전략, 외국의 노사정 책동향과 우리 정책방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이해 등 ⇒ 혁신활동과 업무와 연계를 통한 성과향상 및 혁신참여 유도

#### □ 문화현장체험 학습

- ▶ 한국종합예술학교를 방문하여 발레, 오페라, 성악, 전통음악 등 문화예술 현장 체험  
⇒ 문화체험을 통한 문화예술마인드 함양 및 문화정책 품질 제고

#### □ 1과 1구청 정책결연 추진(사회총괄과와 노원구청간 정책결연)

-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월 1회 방문간담회 및 주제토론 실시,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 및 사회복지사 1일 체험 실시  
⇒ 일선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결연을 맺음으로써 현장중심의 의제 발굴 및 대안제시



## 규제개혁조정관실

- 혁신관련 도서 보급
  - ▶ '이미 시작된 20년 후',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 등 혁신관련 도서를 단체구입하여 개인별 보급
-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4.1~5.31)
  - ▶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례 등을 국민제안을 통해 타파
- 「소규모 건축 중심의 건축규제 개선방안」도출을 위한 Action Learning 토론 학습
  - ▶ 소규모건축에 대한 학습자료 배포, 이슈페이퍼 제출, 관련 전문가 초빙·자문, 팀별평가, 최종안 마련 등 Action Learning 기법 활용

## 심사평가조정관실

- 1인 1혁신과제 실시
  - ▶ 직원 모두가 스스로 실천할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자발적인 혁신 참여 유도
- 혁신 관련도서 기증
  - ▶ 혁신마인드 공유와 확산을 위해 국무조정실 혁신우수부서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일부를 혁신 관련도서를 구입 자료실에 전달
- 부처 자체평가와 정책품질관리제도와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Action Learning을 통해 결과 도출
  - ▶ 업무와 혁신의 연계를 위해 Action Learning 기법을 이용, 정보공유 및 토론 등을 통해 실천지향적 학습 실시

## 복권위원회 사무처

- 공모전을 통해 CI 제작 추진
  - ▶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복권위원회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국민공모전을 통해 CI 제작
- 국민들이 복권위 활동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실시
  - ▶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홍보, 전광판 광고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복권기금을 사용되고 있음을 홍보
- 대고객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화응대요령 마련
  - ▶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 전직원에게 배포하여 전화친절 운동 전개하고, 고객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함으로써 친절운동 확산 유도

## 주한미군대책 기획단

- 법령집 제작 배포
  - ▶ 업무추진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집대성한 법령집을 제작하여 기획단 및 유관기관 공무원들에게 배포  
⇒ 각종 현안업무추진의 편의성 증대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새로운 파견 직원에 대한 멘토링 실시
  - ▶ 새로 파견된 직원 2명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력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 맞춤형 홍보 추진
  - ▶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홍보전략, 주민참여·화합형 홍보, 위기상황별 예상시나리오 작성 등 돌발변수에 대한 적응력 강화홍보 **에 미래**

## 새미래 5월중 활동내역

### 1. 새미래 복지활동계획안 마련

####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도 제고

- ▶ 단체 건강검진 추진
  - 비용절감효과조사를 거친후 직원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실효성이 있을 경우 총무팀과 협의 추진
  - ⇒ 총무팀에서 현재 10개 내외 병원과 접촉 중(1인당 230포인트 정도 예정)
- ▶ 직원에게 콘도 대여
  - 부처사례를 조사후 총무팀에서 검토·추진
  - ※ 서울시는 콘도 847좌(연간 800명 이용가능)를 확보하여 운영 중
- ▶ 근무관행 개선
  - 불요불급한 야간 및 휴일근무 자제 ⇒ 부서 자율추진을 권장·홍보
  - 자율적인 휴가사용 ⇒ 분기휴가계획 및 최소 휴가사용일수 운영

#### □ 계약직 공무원 처우개선

-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소득보전 추진
  - 계약직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한 연봉제 및 유급휴가 도입, 가계보조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혁신팀에 건의
  - ⇒ 연봉제는 일용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타 보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
- ▶ 순환보직 실시
  - 계약직의 특성상 순환보직에 제약이 있으나 희망자 수용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방안을 혁신팀에 건의
  - ⇒ 다음 정기인사시 반영

### 2. 1% 나눔운동(작은 나눔 큰 사랑운동)

#### □ 새미래팀 월 1만원씩 기부기로 결의



□ 1%나눔운동 참여 동의서 마련,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운동 전개

## 1% 나눔운동 참여 동의서

(작은 나눔, 큰 사랑 운동)

『1% 나눔운동』이란 우리의 작은 정성(봉급의 천단위, 혹은 매월 1만원, 개인에 따라 일정금액 등)을 모아 우리 주위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기부금액	※ 봉급의 천단위, 혹은 매월 1만원, 개인에 따라 일정금액 등 기록

귀하께서 기부하신 금액은 봉급 또는 수당에서 원천 징수되며,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2005. . .

기부자 : (인)

“「작은 나눔」이 「큰 사랑」을 만듭니다”

□ 푼돈모으기 운동

- ▶ 빨간 돼지 저금통을 각 심의관실에 비치하여 푼돈모으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었으나,  
⇒ 여직원 모임인 하나임회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새미래는 홍보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



### 3. 주니어보드 소식지 새미래 4호 발간

□ 내용을 기존 혁신동정에서 탈피, 새미래 활동 및 성과 등을 중점 게재

□ 혁신퀴즈 정답 및 추첨

▶ 혁신퀴즈 정답

국	선	도		성	과	항	상	운	동
정				과		참			물
선	택	적	복	지			신	뢰	성
도		반		표	리	부	등		
		하	니		더			통	고
	명	장			십	장	생		객
독	도						수	영	만
과			해	동	성	국			죽
점		환	경	부	조	광	조		
			청		성	실		업	무

▶ 추첨

- 일시 : 2005.5.24(화) 13:00

- 당첨자 : 환경심의관실 양형재 전문위원

- 당첨금 : 10만원권 상품권

### 4. 혁신 아이디어 활성화

□ MS회장 빌게아츠 생각주간(Think Week)을 벤치마킹

▶ 대박형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특별 아이디어 주간 선포

⇒ 선택된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대박형 인센티브 부여

□ 혁신 아이디어 피드백 실시

▶ 혁신 아이디어 제공시, 리플 등을 통해 결과를 알수 있도록 혁신팀에 건의

⇒ 가능한한 리플을 통해 결과를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 혁신회의시 논의를 통해 결과를 통보(혁신팀)

▶ 아이디어 게재시 일정양식(민원양식 등)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건의 ⇒ 시스템 변경시 검토(혁신팀)

▶ 아이디어 발간전 건의 ⇒ 자료를 정리하여 유인물로 발간 검토(혁신팀)

### 5. 혁신 사례 소개

□ 북제주군·서귀포시·전남도 등 지자체, 일용직 공무원 보수 현실화

▶ 주 5일제 실시로 1일 평균 15만원~16만원 정도 봉급이 감소될 것을 예상,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연봉제 실시, 유급휴가제 실시, 수당을 현실화 하는 방안, 보수를 상향 지급하는 방안 등 일용직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처우 개선

□ 법무부 “사랑나눔 운동”

▶ 빨간 돼지저금통 비치 5개월간 7백40만원과, 자발적 성금 합쳐 9천3백만원 성금 모금

⇒ 회귀병 어린이 치료 지원(3,300만원), 암투병 불우직원 지원(4,000만원), KBS 사랑의 리퀘스트(2,000만원)에 전달

□ 부산지방병무청 사랑나눔 실천운동 추진계획

▶ 사랑의 모금 및 헌혈운동 실시, 노인위탁시설 방문 자원방문 실시

□ 1사 1촌 운동

▶ 기업은 사회봉사활동을 농촌과 연계하여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주5일 시대를 맞아 농촌에서 여가 보내기 등으로 임직원의 복지 증진

□ 사원에게 감사 메일 받는 KOIS(한국인포서비스) 박균철 사장

▶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114 안내사원의 복지 개선, 정규직 급여는 동결하더라도 비정규직 급여 인상 등

▶ 박사장은 임원들에게 “도와줄 수 없거든 함께 올라라”라고 말하는 등 박사장 일화 소개 새미래



# 재미있고 성과(?)있는 혁신 퍼즐

우리 국무조정실이 정부혁신의 선도 부처로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로, 금번에 혁신팀 주관으로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국무조정실 혁신매뉴얼」을 발간·배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알찬 혁신과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혁신퍼즐은 「국무조정실 혁신매뉴얼」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지난 혁신퍼즐 II에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혁신매뉴얼을 다시 한번 관심있게 숙독할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O^

## 〈혁신마당〉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가로열쇠】

1. 우리실 혁신 추진일정은 혁신집중기(2004년)⇒'0000' (2005년)⇒혁신제도화기(2006년)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p.23 참고)
3. 작년 삼성경제연구원에 의한 혁신교육에서 말하기를, 21세기 디지털시대의 특성은 '小速連開'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징기스칸의 예를 들면서, 디지털 '000'의 특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지요.(※ p.95 참고)
5. 마치 우리의 여의도와 같이 평양시 대동강에 있는 수려한 섬이름인데요, 그 섬 안에 경기장도 있는지 '000' 경기장이라는 것도 있던

데요.

6. 지난 5.24~27까지 코엑스에서 '정부혁신세계' '00'이 개최되었습니다. 한편, 05년 정부혁신 추진과제 중 실행과 확산중심의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하면서, 주관·선도부처가 참여하는 '00'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p.7 참고)

7. 지난 혁신퍼즐II에도 소개된 BSC에 따른 성과지표 우수부처의 줄임말인데요, 금번 혁신매뉴얼에도 혁신의 주요기법 중 하나로서 이 부처의 BSC가 소개되었습니다.(※ p.137 참고)

10. Osborne & Plastrik의 정의에 의하면, '0000'은 공공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 개혁성을 극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정부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121 참고)

12.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4호선을 타고 어린이대공원에 가다보면 과천'00'장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던데요... 경주에 사용되는 말...^^

14. 얼마전 국가인권위에서 중앙인사위 등에 공무원 '00'과 관련하여 5급이상(만 60세)과 6급이하(만 57세 등)의 차이에 대해 시정권고한 바 있습니다.

15. 로버트 차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중에 나오는 법칙 중 하나입니다. 조직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의 시작은 '00'이라고 합니다.(※ p.149 참고)

17. 정부혁신을 위한 전체 17개 공통혁신과제 중 6개과제를 우리 국무조실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중 Product혁신 중 하나로서, 현재 총괄심의관실에서 '공공기관의 0000에 관한 기본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괄측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계신데,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핫~팅(※ p.41, 50 참고)

19. 정식임용 이전에 그 일에 종사하는, 일종의 훈련과정중의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 예를들면 사무관'00', 주사보'00' 등을 들 수

있겠지요.

21. 작년에 유진과 함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는 드라마에서 열연을 한 남자배우인데요, 본명은 곽태근이라고 하네요...^o^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을 위해서...'OO'이면 감천이라는 속담도 있지요?

24. 위원회 또는 회의 등에 안건을 제출한다 또는 'OO'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26. 앞서 살펴본 정부혁신을 위해 국조실이 주관하고 있는 Product 혁신 중 하나로서, 현재 심사평가조정관실에서 추진중인 과제입니다. 정부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책 품질OO'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매뉴얼 54페이지를 참고하세요.(※ p.41, 54 참고)

27.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노력도 필요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면 안되겠지만, 그 반대로 'OOO'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힘 내세요~

29. 세상에 널리 발표함을 의미하는데, 정부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홍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보다 정확한 'OO'는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30. 공무원에 대한 'OO' 훈련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현재 중앙인사위 능력발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세로열쇠】

1. 금년에는 정부혁신의 추진을 위하여 성과관리형 혁신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OOO' 시스템 구축으로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p.10 참고)

2. 2004년도 국무조정실 혁신활동에 소개된 우리실 혁신성과 2의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OOO'을 통한 불필요한 일 버리기, 회의운영방식 개선 등을 참고하세요.(※ p.84 참고)

3. 올림픽 정식 경기종목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세인 종목인데요, 유명한 선수로서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 선수 등이 있습니다.

4.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여자가수인데요, '슬픈 안녕',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등의 인기곡이 있고요, 큰 눈이 인상적이었는데...

7. 얼마전에 종영된 장보고와 관련된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이름만큼이나 장보고가 해상제국의 지배자로서 그 위엄이 대단했다

고 하네요

8. 여성·OOO·가족 기능의 조정으로 기존의 'OOO'보호위원회가 'OOO'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있는데요, Y 사무관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탕~

9. 「새미래」소식지 창간호에 혁신사례 우수부처로서 소개된 부처는 'OO'부인데요, 지난 20세기가 산업·개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닌 'OO'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1. 경부선의 출발점은 서울역이구요, 종점은 'OOO'입니다. 넘 쉽다~♪

13. 부처 혁신과제 및 활동에 'OOOO'(일종의 점수)를 부여하여 상시 관리함으로써 혁신추진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부처 및 개인 포상 등의 중요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p.10 참고)

16. 성과관리형 혁신시스템의 본격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혁신관리평가제도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연간 목표 및 성과지표에 따라 사전평가-과정평가-사후평가 실시 등으로 'OO'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p.9 참고)

18. 예전에 조선 광해군이 장군 강홍립을 통하여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OOO'외교를 성공적으로 펼쳤다고 하는데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적 전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 혁신 평가결과를 부처, 부서, 개인 단위의 'OO'(즉 예산과 인사 등)와 철저히 연계함으로써 혁신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보다 성공적으로 혁신이 추진될 것입니다.(※ p.9 참고)

22. BSC, 즉 균형 'OOO'는 조직의 미션과 전략에서 도출된 평가지표들의 조합입니다.(※ p.78 참고)

23. 간단히 '책에 대한 평'을 의미합니다.

25. 국조실 자체혁신과제 중 하나로서, 'OO'관리직을 도입,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실의 반송이, 유정미씨가 'OO'관리직 제1호로서 열심히 교육중에 있는데, 곧 복귀할 예정이랍니다. 멋진 활약 기대해 봅니다.(※ p.31 참고)

26. 혁신의 장애 극복방안 중 첫째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OO'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130 참고)

28.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리를 놓다', '임시로 놓은 다리' 등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혁신퍼즐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이번 퍼즐을 통하여 국무조정실 혁신매뉴얼에 보다 친숙하게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답을 맞추어 국무조정실 주니어보드에게 주시면, 추첨을 통해 1명을 선발하여 십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주니어보드



**등록일:** 2005년 3월 2일

**발행일:** 2005년 6월 3일 통권4호

(격주 또는 월간 발매품)

**발행인겸 편집인:** 새미래(주니어보드)

이창수(팀장), 김진곤, 김세용, 권용식,  
신영진, 서진희, 유정미, 이순아, 육현수,  
진선미

**발행소:**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국무조정실



## 편집후기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성원 속에 파끈파끈한 새미래 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던 새미래가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지 되돌아 봅니다

빠듯한 점심시간을 이용한 순간의 미팅으로 국조실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까?

새미래라는 소식지 발간만으로 우리의 미션을 완수했다고 볼 수 있을까?

소식지에 국조실 동정이나 게재하는게 주니어보드 소식지인가? 하는 반성도 해보지만,

그래도 바쁜 와중에 옆 동료의 눈치를 보아가며 미팅에 참석해 준 새미래 팀원이 있기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4호의 소식지를 발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새미래 소식지는 국조실의 동정 보다는 성과향상과 혁신활동 중심으로 더욱 알차게 담아나갈 것을 다짐해 보며, 다음 호를 기대해 주세요^^ 새미래

